

루쉰(魯迅)의 『아큐정전(阿Q正傳)』을 활용한 ‘고전읽기와 토론’ 수업 사례 연구

고혜림* · 이은상**

목 차

1. 서론
2. ‘고전읽기와 토론’ 텍스트로서 『아큐정전』
3. ‘고전읽기와 토론’ 수업 사례
4. 교양과목 텍스트로서 루쉰 문학 작품의 활용 가능성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P 대학 교양필수 ‘고전읽기와 토론’ 수업에서 루쉰(魯迅)의 『아큐정전(阿Q正傳)』을 텍스트로 활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루쉰의 삶과 글쓰기를 토대로 『아큐정전』이 중국 전통 사회와 혁명의 모순을 풍자하며 인간성의 본질을 탐구한, 여전히 재해석 가능한 고전임을 밝혔다. 둘째, 『아큐정전』이 읽기, 토론하기, 서평 쓰기로 이어지는 교수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고전 텍스트로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루쉰 문학 작품이 MOOC와 같은 온라인 강좌 및 융복합 교양 강좌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텍스트임을 검토하였다. 이로써 루쉰 문학 작품이 고전 읽기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교양과목에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고전 텍스트, ‘고전읽기와 토론’ 수업, 루쉰, 『아큐정전』, 교양과목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제1저자)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교신저자)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P 대학 교양필수 ‘고전읽기와 토론’(이하 ‘고토’로 약칭함) 수업에서 고전 텍스트로서 루쉰(魯迅)의 『아큐정전(阿Q正傳)』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다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존에 고전 읽기 수업 사례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결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2000년을 전후하여 기초교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적 글읽기가 고전 읽기라는 이름으로 대학교양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고전 읽기는 교수학습 방법의 대상으로, 관련 사례 연구는 교양교육 연구의 주요한 분야로 자리잡았다.

최윤경, 한수영(2021)에 따르면, 사례 연구는 전통적인 고전 읽기의 영역을 제도화된 교육 커리큘럼, 특히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교양교육 커리큘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 교양교육이 교육적 지위를 획득해가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연구의 특성상 교과 목표, 현황, 수업 진행 방식, 학생의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논문으로서 객관성, 논리성, 확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¹⁾

이하준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고전 교육이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능화, 수단화되었고, 사례 연구는 수업 운영 사례 분석 이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말하자면 왜, 무엇을 위한 고전 교육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본말이 전도되는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²⁾

1) 최윤경, 한수영, 「고전읽기 관련 교양교육 사례 연구의 현황과 진단」, 『교양학연구』 제16집,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226-228쪽.

2) 이하준, 『교양교육 비판』, 서울: 북코리아, 2022, 100-103쪽.

둘째, 그 새로운 방향은 ‘어떻게’에 집중된 수업 운영 사례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을까’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활용 사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번째 문제의식은 앞서 언급한 두 건의 비판적 연구에서 제기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텍스트 활용 사례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인간의 내면과 인간성을 근본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고전 읽기의 본질적인 목표에 좀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³⁾ 그뿐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고전 읽기의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텍스트 선정과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순원 문학, 니체의 문학을 다룬 논문 일부를 제외하고, 관련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⁴⁾

P 대학 고도 수업에서는 중국학 외에도 서양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자가 텍스트로 『아큐정전』을 활용하고 있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교양과

3) 전영옥, 강옥희, 「대학 고전읽기 교육의 교육목표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S 대학교 <명저읽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지식과교양』 제14호, 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53쪽.

4) 관련 사례 연구로 황순원 문학, 니체의 문학에 주목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오태호, 「황순원 문학의 ‘고전읽기’ 과목으로서의 적절성 연구」, 『국제어문』 제76호, 국제어문학회, 2018, 349-374쪽; 김광식, 「인성교육으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 서울대학교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를 중심으로」, 『교양 기초교육연구』 제1권 2호, 2020, 25-50쪽.

5) P 대학 교양교육원에서는 매 학기가 끝나고 교양필수 수업 교수자가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직하 세미나’)을 개최하여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공유된 바를 참고하자면, 중국학 이외에도 서양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큐정전』을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었다. 타 전공자가 『아큐정전』을 텍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분량이 적절하다는 점 둘째, 아큐의 이야기가 현재 사회에서 나와 우리의 문제와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양 철학 교수자는 작품의 ‘정신승리법’을 인간 심리의 보편적 방어 기제로 해석하고, 문학 교수자는 서사와 상징성을 분석하여 사회적 모순과 인간 내면을 이해하는 자료로 삼고 있다. 중국학 교수자는 본고에서 분석하는 바와 같이 격변의 시기를 살아낸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루쉰, 그리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아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이 연구는 워크숍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수자가 『아큐정전』을 고전 텍스트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후, 수업 사례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목 텍스트로서 『아큐정전』에 주목하고, 더 나아가 루쉰 문학 작품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첫째, 고전 텍스트로서 『아큐정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지식인으로서 저자 루쉰의 삶과 글쓰기, 고전으로서 『아큐정전』의 의미 등이 포함될 것이다. 둘째, 『아큐정전』을 활용한 고토 수업 운영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전 읽기에서 낭독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갈 포퍼 토론⁶⁾을 위해 발굴한 토론 논제, 서평 쓰기에서 제시한 서평 제목을 분석하여 텍스트로서 『아큐정전』의 적절성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교양과목에서 루쉰 문학 작품의 활용 가능성을 MOOC 강좌, 융복합 영역 교양강좌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로써 고토를 비롯한 교양과목에서 『아큐정전』을 포함하여 루쉰 문학 작품이 텍스트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고전읽기와 토론’ 텍스트로서 『아큐정전』

루쉰(1881-1936)은 한국,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진 20세기 중국의 대표적 인 문학자, 사상가이다. 20세기 중국 지식인 ‘열진’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를 선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루쉰전집』은 소설, 잡문, 서신, 일기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한

6) 대학 토론 수업에서 통용되는 갈 포퍼 토론은 찬반을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이다. 토론은 ‘입론(찬성)-심문(반대)-입론(반대)-심문(찬성)-숙의시간-반론(찬성)-심문(반대)-반론(반대)-심문(찬성)-숙의시간-반론/최종발언(반대)-반론/최종발언(찬성)’의 순서로 실시한다. P 대학에서는 자체 제작한 갈 포퍼 토론 관련 영상을 수업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토론 영상에서는 토론의 핵심 요소인 입론, 심문, 반론에 대한 정의와 토론 순서에 대한 설명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이해하기 쉽게 담아냈다. 실제 수업에서 활용해 본 결과, 이론식 강의만을 바탕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토론에 대한 참여도와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다.

국에서는 2018년에 완역되었다.⁷⁾ 이 전집은 사실상 ‘루쉰을 통해서 보는 중국 현대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루쉰 관련한 출판물은 『루쉰전집』 뿐 아니라 루쉰 평전, 관련 저서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0세기 격동의 역사를 살아간 그의 삶과 글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소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장에서는 지식인으로서 루쉰의 삶과 글쓰기, 고전으로서의 『아큐정전』의 의미를 간략히 검토해보려고 한다.

2.1 저자 루쉰의 삶과 글쓰기

루쉰의 작품은 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가 쓴 글의 소재는 그의 삶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중국의 지식인을 대표하는 그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첫째, 그는 당시 시대를 앞서간 중국의 지식인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전통 학문을 배웠으면서도 새로운 사상을 수용해갔다. 전통 사대부 가문 출신으로 경서를 배웠고, 문사철에 능통한 시인, 서예가, 고고학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혁명의 시대, 이념의 시대 한복판에서 그는 동시대의 지식인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다.

루쉰은 미국 유학파로 과격주의를 비판하고 군자임을 자처하는 ‘정인군자’(正人君子)와는 다르게, 세상 속에서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의 ‘동지’들과도 양보 없는 싸움을 하였다. 그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 결렬되고 좌, 우익 대립이 격렬했던 1927년부터 상하이에 정착하였다. 상하이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동지라고 여겼던 일부 급진 좌익작가들로, 이들은 혁명 문학 고취를 위해 문단의 유명 인사 루쉰을 깎아내렸다. 루쉰은 이 논쟁에 ‘직접’ 참여하였

7) 루쉰전집번역위원회는 2007년 번역에 착수해 11년 만에 총 20권을 완간했다(『루쉰전집』 全20卷, 서울: 그린비, 2018). 이 번역은 중국인민문학출판사(中國人民文學出版社)에서 펴낸 『魯迅全集』(1-18卷) 1981년판과 2005년판 등을 저본으로 삼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510178900005?input=1195m>, 연합뉴스, “루쉰전집’ 완간……사회 변화 꿈꾼다면 읽어봐야”, 검색일: 2024.7.5.)

다. 국민당이 군벌의 시대를 끝내고 전국을 통일한 뒤 일당 독재를 강화하자 좌익작가들은 좌익작가연맹(‘좌련’)을 결성하였는데 루쉰은 좌련 활동에 기꺼이 참여했다. 그러나 장제스(蔣介石)의 난징(南京)국민정부가 좌련을 포함한 좌익 세력을 탄압하면서 그와 가까운 벗들이 국민당 특무조직에 의한 백색 테러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그 역시 살해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쉰은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해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꽃을 위해 썩어 없어지는 들꽃’이 되기를 바랐지만, 사후 그의 글은 ‘5·4’의 상징으로 여전히 살아 숨 쉬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가 ‘계몽의 전사’로 불리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

둘째, 그의 가족사 역시 전통과 근대의 두 가지 모습이 중첩되어 있다. 루쉰은 귀국 후 고향 사오싱(紹興) 등지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신해혁명(1911)으로 난징에 혁명정부가 세워지자 교육부 관리가 되었다. 혁명정부가 베이징으로 이전하면서 루쉰도 베이징으로 거처를 옮겼다.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한다.

하나는 동생 저우쭈어런(周作人)과의 결별이다. 저우쭈어런은 일본 유학 시절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그 일본인 부인과 루쉰이 불화하면서 저우쭈어런과도 결별하게 된다. 저우쭈어런은 루쉰 못지 않은 5·4의 지식인으로 베이징대 교수로 재직했지만, 중일전쟁으로 베이징이 일본군에게 점령된 뒤 친일적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 사회주의 중국에서 체포, 투옥되기도 하였다.

다른 하나는 루쉰이 출강하였던 베이징여사대 학생 쉬광핑(許廣平)과의 만남이다. 루쉰의 부인 주안(朱安)은 일본 유학 시절 ‘고통스런 어머니의 선물’로 무학(無學)인데다가 전족을 한 전통 여성이었다. 루쉰은 ‘신여성’ 쉬광핑과 사제지간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상하이에서 공식적으로 동거를 하였다. 쉬광핑은 신여성이었지만 결혼 이후 루쉰이라는 거목의 그늘 속 동반자로, 그의 비서 겸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았다. 루쉰 사후 쉬광핑은 권력과 싸운 싸움꾼 루쉰과 달리, 사회주의 중국에서 여성 지도자로, 끊임없는 자기 개조를 주장하면서 헌신을 표명하는 생존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들 가족

사에는 '전통과 근대', '신여성', '자유연애', '친일', '사회주의' 문제 등이 농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식인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지식인은 루쉰과 루쉰 문학에 큰 관심이 있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중국의 유사한 역사적 상황 때문이고, 또한 루쉰 문학의 철저한 자기 해부, 저항 의식과 비판 정신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큐정전』을 포함한 루쉰의 대표 소설은 식민지 조선에서 루쉰과 동시대를 살았던 지식인에 의해 번역되었다. 『동아일보』 상하이 특파원 신언준은 루쉰이 상하이에서 국민당의 블랙리스트 인사가 되어 피신해 있을 때, 그를 직접 만나 루쉰 방문기를 썼다. 독립운동가이자 저항시인 이육사는 국민당 인사 양성포(楊杏佛)의 장례식장에서 루쉰을 처음 만났는데, 루쉰 사후 '조선의 한 사람 후배'로 『조선일보』에 장문의 「루쉰추도문」을 게재하였다. 해방 이후 신문기자를 거쳐 대학교수로 재직한 리영희는 엄혹한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은 대표적인 지식인 중의 한 명이었다. 루쉰이 그러했듯이 루쉰의 잡문을 익힌 리영희의 글쓰기는 군사독재, 반공이데올로기에 숨죽이고 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리영희의 표현대로 하자면 '루쉰에게서 오늘의 우리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⁸⁾

2.2 고전으로서 『아큐정전』의 의미

『아큐정전』은 중국의 전통 사회와 혁명의 모순을 풍자적으로 그려낸 루쉰의 대표작 중 하나로,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정신적 유산이 되는 기록으로서의 문학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정신승리법에

8) 이상 지식인으로서 루쉰의 삶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저서를 참고할 것. 이은상, 이해경, 천성립, 이정구, 이호현, 김형렬, 한지연, 차창훈, 이선이, 김호, 김혜수, 김승룡, 정진선,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인간을 묻다』,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02, 232-281쪽.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혁명에 참여하였다가 그 과정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아큐는 당시 중국의 역사적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낯설지 않은 우리 혹은 우리 주변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전체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소설의 전반부(1장에서 6장까지)는 주인공 아큐의 정신승리법에 관한 내용이다. 아큐는 당시 사회의 최하층 낱팜팔이꾼으로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인물로 묘사된다. 아큐가 거주하는 웨이쑹(未莊) 마을에는 자오 나리택 사람들로 자오 나리, 자오 도련님(자오 나리의 아들), 우 어멈(자오 나리택에서 일하는 여성)과 그 외 마을 사람들로 가짜 양놈, 왕 털보, 샤오D, 여승 등이 등장한다. 아큐는 자오 나리, 자오 도련님, 왕 털보, 여승, 우 어멈, 샤오D 등으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만, 이를 정신승리법이라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려 한다. 정신승리법은 아큐가 현실에서 패배나 모욕을 당할 때, 스스로는 정신적으로 이겼다고 믿는 자기 위안의 한 방식이다.

소설의 후반부(7장에서 9장까지)는 아큐의 혁명 끝, 아큐가 신해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비극적 삶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다. 혁명이 발생하자 아큐는 더 우쭐해지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혁명당원을 사칭하고 다니지만 가짜 양놈은 아큐가 혁명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오 나리택이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아큐는 이 사건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 결국 아큐는 혁명군에 의해 붙잡혀 재판을 받고 마을에서 조리돌림을 당한 뒤 처형된다. 그러나 아큐는 자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영웅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승리법으로 자신을 위로한다.

고전으로서 『아큐정전』의 의미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당시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식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투선은 중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예리하게 비판하며 이를 통해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의 소설에 언급되는 중요한 시대적 배경인 신해혁명은 어떤 의미

를 가질까. 아큐는 원하는 것,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혁명에 가담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먼저 혁명에 나선 가짜 양놈에게 거부당했고, 오히려 자오 나리택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혁명당에 의해 처형되었다. 여기서 혁명이란 단순히 이름 바꾸기, 주인 바꾸기, 낡은 의자 빼앗기였을 뿐임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확인할 수 있다. 루쉰은 아큐라는 한 인간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정신승리법이라는 자구책의 모순, 그리고 자존심을 다각도로 탐구한다. 작품 속 아큐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반항과 수용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루쉰은 인간이 가진 모순적 성향과 복잡한 내면세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혁명으로 청왕조는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탄생했지만, 군벌 위안스카이는 정권을 장악한 뒤 다시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꿈꾸다 사망하였고, 그 이후에 군벌이 할거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이러한 ‘절망에 대한 반항’으로 ‘새로운 문화운동’에 뒤늦게 참여한 ‘광인’ 루쉰은 ‘아큐에 관한 스토리’를 탄생시켰다. 소설 속의 아큐는 과연 나오는 상관없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인물에 불과한 것일까. 아큐는 우리의 내면에 깃든 비굴함과 우매함을 비춰보는 거울이 아닐까. 이에 아큐는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학의 형상으로 자리잡았다. 발간 이후 영, 프, 러, 일,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 소개된 연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현재-여기’의 관점에서 작품 속 아큐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루쉰이 그려낸 작품 속 시대는 단순히 20세기 초반에 박제되어 있는 과거의 시대에 불과한 것일까. 소설 속에서 아큐는 죽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지 않을까. 아큐의 삶을 통해 제기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의 존엄성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루쉰의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대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큐의 모습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하

고, 그를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이 작품에 있다.

3. ‘고전읽기와 토론’ 수업 사례

P 대학 고도 수업은 ‘고전 선정(PNU 고전 99선+ 추가 고전 50선 중 선정) → 고전의 시대적 배경 및 저자 소개 → 고전 읽기 → 퀴즈 → 토론(칼 포퍼 토론) → 서평 쓰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업 모형, 혹은 관련 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⁹⁾

필자는 2023년 1, 2학기 최대 8개 분반에서 『아큐정전』을 텍스트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모형에 따른 주차별 교수계획은 <표 1> 과 같다.

주별 강의계획		
주차	강의 및 실험 실기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주차	강의 소개	강좌 오리엔테이션
2주차	토론과 서평에 대한 강의	칼 포퍼 토론 동영상 시청
3주차	저자 소개와 시대적 배경(1) 『아큐정전』 낭독(1)	1-4장 강독
4주차	저자 소개와 시대적 배경(2) 『아큐정전』 낭독(2)	5-7장 강독
5주차	『아큐정전』 낭독(3)/ 퀴즈	8-9장 강독
6주차	『아큐정전』 토론(1)	칼 포퍼 토론
7주차	『아큐정전』 토론(2)	칼 포퍼 토론

<표 1> ‘고전읽기와 토론’ 수업 주차별 강의계획(『아큐정전』)

9) 오진영, 「<고전읽기와 토론> 강좌에서 논증적 질문 역량 개발을 위한 QBL-수업모형 사례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6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131-147쪽; 허남영, 정인모, 「<고전읽기와 토론> 강좌에서의 읽기 모형 개선 방안」, 『교양교육연구』 제8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529-557쪽.

이 장에서는 『아큐정전』 읽기를 ‘낭독’의 방법으로 진행한 사례를 통해 고전 읽기에서 낭독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토론하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발굴한 토론 논제, 서평 쓰기에서 제시한 서평 제목을 검토해봄으로써, 텍스트로서 『아큐정전』의 적절성 문제를 제시해보려고 한다.

3.1. 읽기: 낭독하기

전통적 독서는 원래 책을 소리 내어 읽는 ‘낭독’이었다. 낭독은 시각과 청각을 모두 활용해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소리 내어 읽게 되면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리고, 책의 의미 파악뿐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의 마음마저 변화를 이끌게 된다.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개인의 수양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느 때부터 눈으로 읽는 ‘묵독(默讀)’이 독서의 방법으로 자리하게 하면서 소리의 침묵이자 외부와의 소통이라는 ‘신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¹⁰⁾

이에 고토 수업에서는 읽기의 방법으로 낭독을 활용하였다. 낭독은 3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낭독이 가능한 이유는 소설의 분량이 함께 강독하며 읽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¹¹⁾ 고토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최소 2권의 고전을 텍스트로 하여 읽기, 토론하기, 서평 쓰기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총 15주간으로 구성된 한 학기 수업에서 고전을 충분히 완독하고자 한다면 그 분량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아큐정전』은 총 9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중국 고전소설의 장회소설 형식

10) 이기대, 「독서의 전통적 방법과 낭독의 효과」, 『한국학연구』 제70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126쪽; 고미숙, 『낭송의 달인, 호모큐라스』, 서울: 북드라망, 2014, 87-112쪽.

11) 『아큐정전』의 번역 판본은 다양하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특정 번역가의 판본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도서를 구입해야 할 경우 이육연의 번역서를 소개하였다. 루쉰 저, 이육연 역, 『아큐정전』(서울: 문학동네, 2011). 이 책은 가독성뿐만 아니라 판화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각적인 도움을 준다.

으로부터 작품 구성에 도움을 받았다. 대략 3주간에 걸쳐 강독을 진행할 경우 1주에 3-4장씩 읽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실제 수업에서는 다음 2가지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낭독하고 1장이 끝날 때마다 교수자가 부가 설명을 하는 방식, 모둠을 이루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낭독하고 최종적으로 읽기가 끝났을 때 교수자가 최종 설명을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교수자는 작가의 의도나 등장인물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을 가능한 한 배제함으로써, 텍스트를 처음 읽게 되는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경험하도록 했다.

이러한 낭독의 방식은 과제로서 텍스트 읽어오기를 지시했을 때보다 수강생들을 더욱 집중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함께 책을 읽었다는 공동체 의식과 모둠원들과의 낭독을 통한 상호 간의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었다.

3.2. 토론: 칼 포퍼 토론

텍스트 선정은 텍스트의 분량 외에도 이어서 진행될 칼 포퍼 토론을 유념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칼 포퍼 토론은 기본적으로 3-4명의 학생이 하나의 모둠을 구성하고, 두 모둠이 의논하여 토론 논제를 정한 뒤 찬/반팀으로 나누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청중이자 심사위원으로 찬/반팀 토론평가표를 작성하고, 토론이 끝난 뒤 찬/반팀과 질의응답을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토론에 대한 간단한 비평을 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토론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모둠별로 토론 논제를 정하는 것이다. 사실 고토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다듬어가면서 찬/반이 분명한 토론 논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이에 모둠별로 토론 논제와 관련한 자유로운 논의를 진행하게 하되, 교수자는 그 논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적당한 선에서 조언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굴된 토론 논제를 살펴보게 되면 수강생들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 정도와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논제의 예시는 다음 <표 2>와 같다.

	논제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정신승리법은 필요하다.	텍스트 중심
2	범죄자의 인권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확장된 논제
3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사형제도에 준하는 형벌은 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확장된 논제
4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확장된 논제
5	정신승리법은 필요하다.	텍스트 중심
6	범죄자의 갇생을 위해 형벌보다 인간적인 대우가 더 효과적이다.	확장된 논제
7	혁명은 결과보다 목적이 중요하다.	텍스트 중심
8	중범죄자는 공개처벌을 해야 한다.	확장된 논제
9	국가의 존속이 위협한 상황에서 아큐와 같은 희생양이 필요하다.	텍스트 중심
10	정신승리법은 자기방어 기제로서 좋은 방법이다.	텍스트 중심
11	사형제도는 부활되어야 한다.	확장된 논제
12	아큐의 정신승리법은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텍스트 중심
13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정신승리법을 사용해야 한다.	텍스트 중심
14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당연하다.	확장된 논제
15	사회가 변할 때 일어나는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다.	확장된 논제
16	범죄의 결과 상관없이 범죄자는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확장된 논제
17	개인적인 사유로 혁명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낸다면 옳다.	확장된 논제
18	생계유지형 범죄자 역시 처벌해야 한다.	확장된 논제
19	사회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	확장된 논제
20	국가는 아큐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확장된 논제
21	강제적 혁명이라도 성공한 혁명이면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	확장된 논제
22	아큐는 비판 받아 마땅한 인물이다.	텍스트 중심
23	아큐의 죽음은 (사회적 잘못이 아닌) 개인의 잘못이다.	텍스트 중심

〈표 2〉 ‘고전읽기와 토론’ 수업에서 발굴한 토론 논제(『아큐정전』)

〈표 2〉에서는 학생들이 발굴한 논제를 텍스트 중심 논제, 확장된 논제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텍스트 중심 논제는 ‘정신승리법’, ‘혁명’, ‘아큐의 죽음’, 확장된 논제는 ‘혁명’(중복), ‘범죄’, ‘사형제도’, ‘국가(사회)와 개인의 관계’ 등이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아큐를 비난받아야 마땅한 인물로 규정하지만, 점차 토론 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아큐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인물인가, 정신승리법이 아니었다면 아큐는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큐의 죽음을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텍스트를 자신의 문제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서평 쓰기: 자유주제 서평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은 다양한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서평을 쓰면서 보다 구체화된다. 학생들이 제출한 서평 제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인물 중심 서평	스토리와 소설 구조 중심 서평
텍스트 기반 서평 제목	<p>거울 너머의 아큐 노예 근성, 아큐만이 가진 것일까 모두에게 아큐 같은 면이 있다. 아큐: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아큐가 스스로를 지키는 법 아큐는 언제나 존재했다 아큐는 죽지 않았다 아큐로부터 깨닫는 정신승리법 아큐와 현대인의 정신승리법 아큐의 21세기 버전 아큐의 근거 없는 자부심 아큐의 정신승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어쩌면 아큐가 가장 불쌍하지 않은가 우아한 아큐의 죽음 패배자 아큐의 정신승리법 주인공의 터무니없는 몰락 죽음까지 동행하는 즐거운 고통</p>	<p>사라지지 않은 '강약약강'에 대한 비판 순식간에 승리로 역전하기 스스로 고립되는 자기합리화 승리한 기록의 진실 정신승리, 진정한 승리일까 정신승리, 그 끝은 어디인가 언제나 이기는 법 이게 맞나? 정신승리법? 발전의 걸림돌: 정신승리 비판과 분별력의 필요성 무분별한 정신승리의 폐해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것은? 자기합리화는 꼭 나쁜 것일까 건강한 몸보다 건강한 정신 능동과 수동 객관성과 합리화 사이 무궁한 해석의 여지 패자 없는 패배</p>
	텍스트가 반영한 사회 중심 서평	자신의 성찰 중심 서평
텍스트 너머의 확장	<p>1911년의 아큐와 2023년의 아큐 결국, 계몽이다 근대 중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아큐 길 잃은 민중의 나침반 노예의식에서 벗어나 참다운 혁명으로 루쉰에게 혁명을 묻다</p>	<p>나는 아큐다 나는 아큐보다 나은 사람인가 나와 중국인들은 아큐인가 도망가는 생각 밝은 미래로 살아가는 법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p>

장 적 사 고 에 기 반 한 서 평 제 목	루쉰의 소설에서 계몽의 향기가 아큐를 통해 바라본 중국의 모습 아큐정전으로 보는 세상 우매한 민중에 대한 비판 중국인들의 민낯과 루쉰의 희망 중국인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은 중국인 희망의 그림자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중국의 시대정신과 우리의 삶	당신은 온전히 당신의 주인입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를 먼저 바꾸라 시간을 넘어 전달되는 이야기 아큐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다 아큐정전에 담긴 현대사회 아큐처럼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큐처럼 살아보기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당신들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의 우리는 아큐와 닮았다 이젠 노는 게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거야 현대인의 길잡이는 사물이 아닌 과거의 인간이다 현시대의 아큐는 누구일까 현실 인식이 없는 현대 사회의 아큐 합리화: 일회성 마취약 자신의 실패와 마주하는 것
--	--	--

〈표 3〉 ‘고전읽기와 토론’ 수업에서 제시한 서평 제목(『아큐정전』)

〈표 3〉에서는 서평 제목을 ‘텍스트 기반 서술 서평 제목’, ‘텍스트 너머 확장적 사고에 기반한 서평 제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텍스트 기반 서술의 서평 제목’으로 “노예 근성, 아큐만이 가진 것일까”, “모두에겐 아큐 같은 면이 있다”, “아큐는 죽지 않았다”, “아큐의 정신승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등은 중심 인물인 아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신승리는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아큐처럼 무조건적인 정신승리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아큐의 예시에서처럼, 정신승리는 본인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수단일 수 있지만 결국 자아 발전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적절한 정신승리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아큐처럼 지나친 정신승리는 위험하다.”(제목: 모두에겐 아큐 같은 면이 있다, 학생 K, 분자생물학과)

“사라지지 않은 강약약강에 대한 비판”, “정신승리, 진정한 승리일까”,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것은” 등은 스토리와 소설의 구조에 주목한 제목이다.

“책을 덮고 찻잔을 곱씹을수록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현재에도 아큐와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 모습과 아큐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100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이야기 속 사람들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자아도취하며 사는 사람, 강약약강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 무지한 사람 등 우리 주변에 아큐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가.”(제목: 사라지지 않은 ‘강약약강’에 대한 비판, 학생 Y, 생명과학과)

인물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평이 다수였지만, 더 나아가 ‘텍스트를 넘어서서 확장적인 사고에 기반한 서평 제목’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근대 중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아큐”, “노예의식에서 벗어나 참다운 혁명으로”, “중국인들의 민낯과 루쉰의 희망” 등은 당시의 시대 문제인 혁명 및 계몽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아큐가 행한 정신승리법은 추측하건대 책의 배경인 신해혁명 당시 하층민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종종 하던 정신적 조작일 것이다. 아큐가 특별한 업적을 가진 영웅은 아니지만, 혁명 당시 하층민의 교과서 같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제목: 중국인들의 민낯과 루쉰의 희망, 학생 K, 영어교육학과)

아울러 “나와 중국인들은 아큐인가”, “당신은 온전히 당신의 주인입니까”, “아큐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다”, “자신의 실패와 마주하는 것” 등은 지금의 현실과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이다.

“아큐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으로 그려지며, 이는 현대인의 일면을 반영한다. 자신의 삶을 방어하고자 하는 아큐의 정신승리법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결국 현실을 회피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이 아큐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제목: 자신의 실패와 마주하는 것, 학생 P, 화학과)

루쉰의 텍스트는 당시 중국 사회의 계몽과 혁명이라는 시대적 맥락에 뿌리 내리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질문은 “우리는 진정 스스로를 직시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정신승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와 같은 본질적인 성찰로 이어진다. 『아큐정전』을 통해 얻은 이러한 통찰은 독자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고전은 인간과 삶, 그리고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 고전은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스스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선을 보여줄 뿐이다. 고전의 수업 목표는 고전의 사상과 그 가치를 지금 우리 사회와 연결하고 나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아큐정전』은 읽기, 토론하기, 서평 쓰기로 이어지는 교수 계획과 과정적 설계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실천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교양과목 텍스트로서 루쉰 문학 작품의 활용 가능성

일반적으로 루쉰은 소설가로 유명하지만 그의 문학의 또 하나의 축은 잡문이다. 중국 현대문학에서 잡문은 소설과 시, 희극을 제외한 경(중)수필, 르포르, 에세이, 논설, 일기, 편지 등을 모두 포괄한다. 소설, 시, 희극 등은 작품 내의 세계관을 설정하고 인물을 허구로 창조하여 스토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잡문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작가가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나 진실된 속마음, 혹은 현실에 대한 찬탄, 시대의 고민 등을 진솔하게 혹은 신랄하게 담아낸다. 이에 잡문은 작가를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루쉰의 소설뿐만 아니라 잡문에 주목하면 교양과목 텍스트로서 루쉰 작품의 활용 가능성은 커진다. 이와 관련하여 루쉰 작품을 교양과목의 텍

스트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MOOC 강좌로 개발된 사례이다. MOOC 플랫폼에서 루쉰 관련 강좌는 2건이 확인된다. 하나는, ‘루쉰과 현대’(최근 강좌 운영 기간: 2021.8.31.-2022.1.3., 15주차, 담당교수 이옥연)다. 앞서 『아큐정전』 번역자로 소개한 이옥연이 개발한 강좌로, 루쉰의 소설과 잡문을 텍스트로 우리 시대를 읽고 삶의 지혜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두었다. 다른 하나는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인간을 묻다’(최근 강좌 운영 기간: 2024.9.2.-2024.12.13., 15주차, 책임교수 이은상)이다. 이는 ‘근현대 중국’, ‘지식인’, ‘고전’을 키워드로 20세기 중국 지식인 열전 13명의 삶과 글쓰기에 관한 내용으로, 팀티칭 형식으로 전공 분야 13명의 교수자가 개발하였다. 그중 제4강이 루쉰의 삶과 글쓰기에 관한 주제이다. 이 두 강좌 모두 담당교수 혹은 책임교수 소속 대학에서 교양선택 과목으로 학점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례는 ‘MOOC 강좌 개발→교재 저술→학점 연계 교양과목 개설’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며 온라인 학습에서 인문학의 위기, 중국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는다.¹²⁾

두 번째로 P 대학 교양선택 ‘시대와 지성’ 강좌에서 활용된 사례이다. 이 강좌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개설, 운영되고 있는 교양 융복합 영역의 대규

12) 이옥연은 ‘루쉰과 현대’ 강좌를 개발하면서 루쉰 작품 번역서와 저서를 발간하였다. 루쉰 저자(글), 이옥연 번역, 『루쉰 독본』(서울: 휴머니스트, 2020); 이옥연, 『루쉰 읽는 밤, 나를 읽는 시간』(서울: 휴머니스트, 2020). 이은상 등은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인간을 묻다’ 강좌 개발 이후 저서를 발간하였다. 이은상, 이해경, 천성립, 이정구, 이호현, 김형렬, 한지연, 차창훈, 이선이, 김호, 김혜수, 김승룡, 정진선,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이 책은 2023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다. 후자의 MOOC 강좌 개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한지연, 이은상(2023), 「중국 인문 교양과목의 새로운 대안: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인간을 묻다’ MOOC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제69호, 한중언어문화연구,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413-456쪽. 또한 해당 강좌는 2023년도 K-MOOC 블루리본 최우수 강좌에 선정되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 참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1_0002856672, 뉴시스,

“부산대, K-MOOC 블루리본 최우수 강좌 ‘전국 1위’”, 검색일: 2024.9.10.)

모 강좌로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며 주체적으로 부응하는 담대한 지성인의 양성', '멀티캠퍼스 강좌 구현으로 캠퍼스 간 균형 잡힌 교양교육의 실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획 강좌의 모색', '교내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시그니처 강좌 구현'의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매년 강좌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대주제를 선정하고,¹³⁾ 1, 2학기 로 나누어 교내외 전문가(13주차 특강 교수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대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강좌를 진행함으로써 P 대학 세 곳 캠퍼스의 학생들이 동시에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강좌는 매 학기 수강신청 첫날 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2023년도 대주제는 '열린 세계와 미래'로, 그 중 2학기 강의주제는 다음 <표 4> 와 같다.

주차	주제
1	희망은 길이다-루쉰의 희망론
2	재난과 인권
3	글로벌 이슈와 우리의 미래 과제
4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교육의 역할
5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패러다임 쉬프트
6	예술인가, 범죄인가: 뱅크시와 그래피티
7	중간과제
8	언어로 세계를 열다
9	제4차 산업혁명(론)의 이해
10	환경문제와 인간의 권리, 의무
11	미래의 질병
12	열린 세계와 미래?: G2 패권 경쟁과 닫힌 세계
13	독립협회가 만났던 세계: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4	기후변화, 미래의 농업과 식량
15	기말과제

<표 4> '시대와 지성' 강좌 각 주차별 주제(대주제: '열린세계와 미래')

13) 2021년에는 '청춘', 2022년에는 '삶과 죽음'을 선정하였다.

이 중 제1강은 ‘희망은 길이다-루쉰의 희망론’이었다. 이 강좌에서는 루쉰의 잡문, 소설, 서신 등을 텍스트로 루쉰의 독특한 희망론을 소개하였다. 루쉰은 경험적으로 희망을 믿지 않지만, 자신이 경험한 절망은 유한함을 인정하였다. 증명할 수 없기에 절망의 이름으로 희망이 없다고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루쉰에게 “절망과 희망은 모두 허망하였다”. 이 강좌에서는 루쉰의 이러한 독특한 희망론에 관한 의견을 묻고, 더 나아가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였다.

이하 제1강에 대한 학생 소감문¹⁴⁾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새로운 지식 습득의 즐거움과 문학으로의 관심 증대	주제와 관련된 삶의 고민으로의 확장 및 유용성
A캠퍼스	<p>루쉰은 새롭게 알게 된 인물인데 글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다.(21학번 S1)</p> <p>루쉰의 작품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생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23학번 S6)</p> <p>강연이 끝난 후, 루쉰의 ‘광인일기’를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23학번 S11)</p> <p>아규정전과 루쉰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기도 했고 그의 글들이 개인적으로 살펴보자니 어렵게 느껴졌는데 특강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23학번 S16)</p> <p>중국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문학가인 루쉰의 삶과 문학작품을 통해 희망과 절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23학번 S24)</p> <p>희망에 대한 고차원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조금 생소한 내용이라 어려운 점은 있었다.(23학번 S25)</p>	<p>희망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지지 않는 중용의 자세를 가진 루쉰에 대해 알게 되었다.(22학번 S2)</p> <p>희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강의(20학번 S5)</p> <p>‘나에게 희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준 강연이 매우 유익한 것 같다.(23학번 S11)</p> <p>이번 강의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23학번 S14)</p> <p>공정의 단어라고만 느껴졌던 ‘희망’을 새로운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20학번 S20)</p> <p>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주는 좋은 강의였다.(23학번 S22)</p>
B캠퍼스	<p>루쉰이라는 인물과 그의 글에 담긴 생각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습니다.(23학번 S6)</p> <p>인물의 생애를 먼저 알려주고 작품과 그 내용의</p>	<p>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루쉰에 대한 반항을 보여주겠다.(23학번 S1)</p> <p>평소에 자주 가졌던 희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p>

14) 1강에 대한 소감문은 세 곳 캠퍼스 가운데 특히 가장 인원이 많고 수기로 소감을 제출하여 자료를 남긴 A, B캠퍼스의 학생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소개하였음을 밝혀둔다.

	<p>의미를 설명해주어서 이해하기 편했고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23학번 S8)</p> <p>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희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루쉰의 책에 흥미가 생기는 강의였습니다.(23학번 S9)</p> <p>루쉰의 생애와 중국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해주셔서 이해도 쉽고 유익한 강의였다.(23학번 S11)</p> <p>특강 중 루쉰의 생애를 바탕으로 ‘희망’은 허망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것이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23학번 S15)</p> <p>루쉰의 작품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그의 글귀들이 상당히 감명깊었다.(23학번 S18)</p> <p>당시 중국사회를 잘 묘사해낸 아류정전 등 여러 문학작품들이 루쉰을 잘 말해주며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좋은 자료였다.(22학번 S19)</p>	<p>부정적인 면에서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20학번 S3)</p> <p>나에게 희망이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의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했다.(23학번 S17)</p> <p>희망과 절망에 대해 내 인생의 전환점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23학번 S12)</p> <p>나에게 희망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와 같다. 희망과 절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23학번 S14)</p> <p>루쉰과 다르게 나는 희망을 허망하다고 보지 않고 마음 한 켠에 간직했으면 한다.(23학번 S22)</p> <p>내게 희망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23학번 S20)</p> <p>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딘가에 희망이 내재한다고 믿고 싶어졌다.(23학번 S21)</p>
--	--	--

〈표 5〉 ‘시대와 지성’ 강좌 학생 소감문(대주제 ‘열린세계와 미래’, 제1강: ‘희망은 길이다-루쉰의 희망론’)

〈표 5〉에 의하면, 학생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루쉰과 그의 작품을 알게 되어 느끼는 ‘새로운 지식 습득의 즐거움과 문학으로의 관심 증대’이다. 예를 들어, “루쉰은 새롭게 알게 된 인물인데 글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다”, “중국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문학가인 루쉰의 삶과 문학 작품을 통해 희망과 절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내용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희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다. 또 루쉰의 책에 흥미가 생기는 강의였다”, “루쉰의 생애를 바탕으로 ‘희망’은 허망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것이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 등의 강평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주제와 관련한 삶의 고민으로의 확장 및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에게 희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준 강연이 매우 유익한 것 같다”, “긍정의 단어라고만 느껴졌던 ‘희망’을 새로운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나에게 희망이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의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했다”, “루쉰과 다르게 나는 희망을 허망하다고 보지 않고 마음 한 켠에 간직했으면 한다” 등의 소감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루쉰은 희망을 이상주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 속에서 고뇌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정으로 보았는데, 학생들은 루쉰의 희망론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에서 희망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루쉰의 문학 작품은 MOOC와 같은 온라인 학습, 융복합 교양강좌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텍스트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교양과목 텍스트로서 루쉰 문학 작품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중국 문학 작품이 소수 전공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학습자에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을 통해 실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에 대학 교육 현장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고전, 특히 P 대학 교양필수 교과목인 ‘고전읽기와 토론’ 수업에서 루쉰의 『아큐정전』을 텍스트로 활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 루쉰의 삶과 글쓰기를 토대로 고전으로서 『아큐정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20세기 격동의 역사를 살아간 루쉰은 대부분의 지식인이 그러하듯이 전통 사대부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 경서를 배웠고 근대 이후 새로운 사상을 수용해갔다. 그러면서도 다른 일반적인 미국 유학과 지식인들과는 다르게 평생을 ‘계몽의 전사’로 끊임없이 정치권력과 대립하였고, 소위 내부의 ‘동지’들과도 양보 없는 싸움을 하였다. 그는 ‘썩어 없어지는 들풀’이 되기를 바랐지만, 그의 글은 ‘5·4’의 상징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아큐정전』은 중국 전통 사회와 혁명의 모순을 풍자적으로 그려낸 소설로 그 전반부는 주인공 아큐의 정신승리법, 후반부는 아큐의 혁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큐정전』은 당시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식,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지금 현재 여기의 관점에서 작품 속 아큐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연유로 『아큐정전』은 과거의 역사적 맥락을 넘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고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아큐정전』을 텍스트로 활용한 고토 수업 운영 사례를 검토하였다. 고토 수업은 고전 읽기, 토론하기, 서평 쓰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우선, 읽기의 방법으로 낭독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현실적으로 낭독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설의 분량이 적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낭독은 과제로서 텍스트 읽어오기보다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학생 모둠원들 간의 상호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 칼 포퍼 토론을 위해 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중심 논제뿐 아니라 텍스트를 넘어 확장된 논제를 발굴하였다. 논제의 주요 키워드는 정신승리법, 혁명, 아큐의 죽음, 범죄, 사형제도, 국가와 개인의 문제 등을 망라하였다. 마지막으로, 서평 쓰기 과정에서, 텍스트를 넘어 확장적인 사고에 기반한 서평 제목, 말하자면 텍스트를 재해석하여 지금의 현실과 자신을 성찰하는 제목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아큐정전』은 교수 계획과 과정 설계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 교육적 함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양과목에서 루쉰 문학 작품의 활용 가능성을 MOOC 강좌, 융복합 영역 교양강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루쉰 문학 작품은 MOOC와 같은 온라인 교육 환경 플랫폼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이 사례는 MOOC 강좌 개발, 교재 저술, 학점 연계 교양과목 개설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며 인문학 위기, 중국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융복합 영역 교양강좌로 개설된 '시대와 지성' 강좌(대주제 '열린

세계와 미래')에서는 루쉰의 소설, 잡문, 서신집 등을 텍스트로 루쉰의 독특한 희망론을 소개한 뒤, 학생들에게 그 의견을 묻고 더 나아가 자신이 생각하는 희망이 무엇인지에 관한 글을 써보도록 했다. 이로써 희망은 단순한 긍정적 담론도, 부정적 담론도 아닌 실천이 내포된 냉철한 것이어야 함을 미래 세대인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루쉰 문학 작품은 다양한 교양과목의 텍스트로 의미가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루쉰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고전 텍스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교양교육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參考文獻

- 루쉰 저, 이옥연 역, 『아큐정전』, 서울: 문학동네, 2011.
- 루쉰 저, 이옥연 역, 『루쉰 독본』, 서울: 휴머니스트, 2020.
- 이옥연, 『루쉰 읽는 밤, 나를 읽는 시간』, 서울: 휴머니스트, 2020.
- 고미숙, 『호모큐라스』, 서울: 북드라망, 2014.
- 이은상, 이해경, 천성립, 이정구, 이호현, 김형렬, 한지연, 차창훈, 이선이, 김호, 김혜수, 김승룡, 정진선,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인간을 묻다』,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이하준, 『교양교육 비판』, 서울: 북코리아, 2022.
- 김광식, 「인성교육으로 니체의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 서울대학교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를 중심으로」, 『교양기초교육연구』 제1권 2호, 2020.
- 오진영, 「<고전읽기와 토론> 강좌에서 논증적 질문 역량 개발을 위한 QBL-수업모델 사례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6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 오태호, 「황순원 문학의 ‘고전읽기’ 과목으로서의 적절성 연구」, 『국제어문』 제76권, 국제어문학회, 2018.
- 이기대, 「독서의 전통적 방법과 낭독의 효과」, 『한국학연구』 제70집, 고려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19.
- 전영옥, 강옥희, 「대학 고전읽기 교육의 교육목표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S대학교 <명저읽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지식과교양』 제14호, 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
- 최윤경, 한수영, 「고전읽기 관련 교양교육 사례연구의 현황과 진단」, 『교양학연구』 제16집,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 한지연, 이은상, 「중국 인문교양과목의 새로운 대안—‘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인간을 묻다’ MOOC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9호, 한국중국어언어문화연구회, 2023.

허남영, 정인모, 「〈고전읽기와 토론〉 강좌에서의 읽기 모형 개선 방안」, 『교양교육연구』 제8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이옥연, ‘루쉰과 현대’, KMOOC 강좌, 서강대학교, 2021-2022.

이은상 외,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 인간을 묻다’, KMOOC 강좌, 부산대학교, 2024.

<https://www.yna.co.kr/view/AKR20180510178900005?input=1195m>, 연합뉴스,
“‘루쉰전집’ 완간……사회 변화 꿈꾼다면 읽어봐야”, 검색일: 2024.7.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1_0002856672, 뉴시스, “부산대,
K-MOOC 블루리본 최우수 강좌 ‘전국 1위’”, 검색일: 2024.9.10.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Reading Classics of Great Literature” Class Utilizing Lu Xun's *The True Story of Ah Q*

Koh, Hye Lim · Lee, Eun Sang

This paper analyzes a case study in which Lu Xun's *The True Story of Ah Q* (阿Q正傳) was used as a text in the mandatory liberal arts course “Reading Classics of Great Literature” at P University. The following research findings were obtained. Firstly, based on Lu Xun's life and writing, *The True Story of Ah Q* was revealed to be a classic that satirizes the contradictions between traditional Chinese society and revolution, while exploring the essence of human nature, making it a work open to continuous reinterpretation. Secondly,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True Story of Ah Q* is significant as a great literature that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a teaching plan incorporating reading, discussion, and writing reviews. Lastly, it was found that Lu Xun's literary works hold competitive value not only in the online platform like MOOC courses but also in interdisciplinary liberal arts courses. This suggests that Lu Xun's works can be effectively utilized not only in Reading Classics related subjects but also in a wide variety of liberal arts subjects.

Key words : Classic Text, “Reading Classics of Great Literature” Class, Lu Xun, *The True Story of Ah Q*, Liberal Arts

투 고 일 : 2024. 10. 10. / 심 사 일 : 2024. 10. 15.~ 2024. 11. 15. / 게재확정일 : 2024. 11. 20.

